

대학생이 선호하는 의복소재의 특성 연구 -슬랙스와 스커트용 소재의 비교-

김 희 숙* (해전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최근 소재의 변화로써 의복 디자인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소재의 특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유행 및 마케팅 등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소재 선호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선호하는 의복소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120종의 시료를 제시하여 슬랙스와 스커트용으로 각각 선호하는 소재 3종을 순서대로 평가하게 하고 선호순위에 따라 가중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여 계절별 선호소재 각 10종씩을 선정한 다음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봄·가을용 선호 소재는 슬랙스용은 black 색상의 면 능직물 Drill(두께 0.38mm, 중량 1.97g)이며 스커트 소재는 medium gray의 stripe pattern이 있는 basket 조직 모 Pinhead(0.65 mm, 2.69g)였다.
2. 여름에는 슬랙스용으로 dark bluish gray의 린넨 평직물 Crash(0.35mm, 1.48g)를, 스커트용은 pale yellow의 린넨 평직물인 Tropical cloth (0.46mm, 1.58g)를 가장 선호하였다.
3. 겨울에는 olive gray색상의 면 Corduroy(2.15mm, 3.35g)를 슬랙스 소재로 선호하며, 스커트 소재로는 moderate brown의 모 능직물 Hound check(2.22mm, 3.56g)를 선호하였다.
4. 소재의 특성으로서 두께와 중량은 겨울용 소재가 가장 두껍고 무거우며, 스커트용 소재는 슬랙스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두께와 무게의 소재가 선호되었다.
5. 조성섬유로서, 슬랙스용은 봄·가을에는 면, 겨울과 여름에는 모 섬유를 선호하고 스커트용은 계절에 관계없이 모 섬유를 가장 선호하여 드레이프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
6. 직물의 조직으로는 슬랙스는 봄·가을과 겨울에는 능직을, 여름에는 평직을 선호하였고 스커트는 봄·가을에는 평직과 능직, 여름에는 평직, 겨울에는 능직이 많이 선택되었다. 전체적으로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평직을, 다른 계절에는 보온성과 방추성을 고려하여 능직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7. 슬랙스용 소재의 무늬와 색상으로는 대부분 무지 직물을, 다음으로는 선염직물을 선호하며 색상으로는 B와 PB계열을 선호하고, 스커트용 소재로는 무지 다음으로 체크무늬를, 또, PB와 YR의 색상을 선호하였다. 스커트용 소재로는 좀 더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대학생들은 슬랙스용 소재로는 B계열 색상의 무지 모 능직물을 선호하고 스커트용 소재로는 PB계열 색상의 무지 모 능직물을 가장 선호하며, 슬랙스에 비해 스커트용 소재는 더 다양한 특성의 직물이 선호되어서 심미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